

碩士學位論文

貝類를 利用한 自然主義的 裝身具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吳 慈 卿

2002

碩士學位論文

貝類를 利用한 自然主義的 裝身具 研究

指導教授 李 光 振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吳 慈 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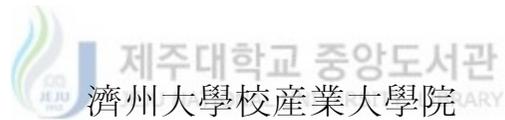
2002

貝類를 利用한 自然主義的 裝身具 研究

指導教授 李 光 振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月 日



産業디자인學科

金 屬 專 攻

吳 慈 卿

吳慈卿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月 日

委員長 _____ (印)

委員長 _____ (印)

委員長 _____ (印)

목 차

Summary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II. 장신구의 자연주의적 이미지	3
1. 장신구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	3
2.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장신구	5
III. 패류에 관한 형태연구	9
1. 형태적 특징 및 분류	9
2.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연구	14
IV. 작품연구	19
1. 제작배경	19
2. 작품에 쓰여진 패류의 형태 및 특성	20
3. 작품전개과정	23
4. 작품설명	33
V. 결론	53
참고문헌	54

그림목차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장신구

<도1> Corsage ornament -----	7
<도2> Brooch -----	7
<도3> Bee and Flower Comb -----	7
<도4> Bee comb -----	7
<도5> Blister Beetle Corsage Ornament -----	8
<도6> Wasp Pin-----	8
<도7> Corsage ornament -----	8
패류에 관한 형태연구 -----	9
<도8> 가시게두키조개 -----	13
<도9> 능선조개 -----	13
<도10> 구멍삿갓조개 -----	13
<도11> 납작소라 -----	13
<도12> 군부 -----	13
<도13> 말군부 -----	13
<도14> 앵무조개 -----	13
<도15> 빨조개 -----	13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	14
<도16> 이태숙, 바람과 씨앗 -----	17
<도17> 최양선, 생명의 환희 -----	17
<도18> 김동연, 바다 저 깊은 곳에는 -----	17
<도19> 김용희, 흐르는 물결은 -----	17
<도20> 최양선, 태동 -----	17
<도21> 손경미, 조개구름 -----	17
<도22> Seaman Schepps -----	18
<도23> Boivin - Brooch -----	18
<도24> Nillicent Rogers - Brooch -----	18
<도25> Warwick Freeman - Brooch -----	18
<도26> Therese Hilbert - Brooch -----	18
<도27> MTheranfred Bischoff - Ring -----	18
작품에 쓰여진 패류의 형태 -----	20
<도28> 보라성계 -----	22
<도29> 파이프성계 -----	22
<도30> 오오타코나마쿠라 -----	22
<도31> 월계관납작소라 -----	22
<도32> 점박이고둥 -----	22
<도33> 잔주름꽃잎조개 -----	22
<도34> 띠달팽이-----	22
<도35> 제주개오지-----	22

<도36> 플립산호	-----22
작품전개과정	-----23
<도37> 전개과정 1	-----23
<도37> 전개과정 2	-----24
<도37> 전개과정 3	-----25
<도37> 전개과정 4	-----26
<도37> 전개과정 5	-----27
<도37> 전개과정 6	-----38
<도37> 전개과정 7	-----39
<도37> 전개과정 8	-----30
<도37> 전개과정 9	-----31
<도37> 전개과정 10	-----32



작품목차

작품 1. 바다의 꿈	33
작품 2. 흔적	35
작품 3. 기다림	37
작품 4. 꿈	39
작품 5. 만남	41
작품 6. 외출	43
작품 7. 영원	45
작품 8.속삭임	47
작품 9.가오리	49
작품 10.기쁨	5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Accessory Design Using Form of Shell-Fish

Oh Ja-Kyung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wung-Jin



Summary

It is widely acknowledged that personal ornaments are highly valued as artifacts nowadays for their beautiful shapes and their added value. We have viewed them as objects of beauty for as long as we have existed and they have existed as objects of compensation for vicarious satisfaction.

I would like to mold the new world of personal ornaments with unique ideas and new materials while maintaining my will to bestow individualism unique to the modern personal ornaments.

I looked to the bountiful nature in search of materials for the personal ornaments and I tried to apply the natural world to creating personal ornaments using the organic and dynamic beauty of shellfish. Therefore, I would like to summarize my research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 developed the design by applying the organic beauty found in Art Nouveau to the dynamic and lively shellfish shapes once the idea and uniqueness of the naturalism was identified from the natural images of the 20th century Art Nouveau personal ornaments.

Second, I tried to convey the natural image realistically by combining, illustrating and contrasting the organic and dynamic shellfish shapes in designing the ornaments befitting their application while trying to maintain the natural uniqueness of them.

Third, I utilized variety of shellfish, such as Bivalvia, Gastropoda, Poyyplacephore, Cephalopda, and Scaphoda, as material to convey the bountiful image of the ocean.

Fourth, I tried to express the new territory for the personal ornaments by researching new material in order to faithfully convey the uniqueness of the shellfish shape and the intention of the design and by molding different shapes.

I was able to glance the vast world of natural shapes and endless possibilities unique to the nature through this research and to design the personal ornaments mimicking and complimenting nature.

I. 서론

1. 연구목적

장신구로 치장하는 행위는 태고 때부터 지속 되어온 인간의 기본 습성이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권 어디에서든 이러한 장식욕구는 각기 고유의 독자적 성격으로 표출되어 왔으며, 자연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독특한 양식으로 미적인 것을 창출했다.¹⁾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물리적, 감성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연 가운데에서도 바다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성장하며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신비한 자연의 질서와 강한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거대한 장으로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식적 욕구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에서 출발하였으며 19세기말 아르누보 장신구에서 보여지는 우아하고, 유기적 형태의 자연주의적 양식을 기초로 하여 아르누보의 이미지를 보다 절제된 선과 간결함으로 단순화하여 패류에서 보여지는 자연적 성질이나 조형요소를 가미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곡선 적이고 부드러우며 유기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패류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장신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남아 있어 주기를 바라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다 생물을 통해 자연과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재료의 모색과 표현 방법으로 장신구의 장식적 기능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 자연주의적이고 사실적인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장신구를 표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1991, p. 7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다에 대한 본인이 가졌던 여러 경험과 느낌들을 장신구라는 소재를 통해 바다 이미지를 패류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자연적 재료들의 사용은 작품 내용의 충실한 표현을 위해 기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본성을 살려 실제적인 형태의 큰 변화 없이 표현함으로써 자연물이 전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제작을 위한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제작에 앞서 선행 연구 문헌과 간행물, 국내외 전문 서적을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장신구에 나타난 특성을 연구하고 자연물의 유기적 형태에서 모티브를 찾아 이를 양식화하여 생동하는 듯한 새로운 이미지와 울동 감으로 생명체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흐름을 장신구 화시키고자 한다.

둘째, 패류에 관한 형태와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패류 수집과 국내외 패류 도감, 바다 속 생태의 관련 서적을 통해 패류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패류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 요소를 선과 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작품 제작 시 패류의 유기적 형태와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 자연적 조형 요소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정은(92.5%)을 이용한 판 작업과 우리나라 해역이 서식지인 조개, 고둥, 소라, 성게 등을 소재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패류의 조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바다이미지가 강한 자연주의적 장신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II. 장신구의 자연주의적 이미지연구

1. 장신구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

하나의 조형은 그 자체가 장식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식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과 연계하는 바탕과의 관계를 의미한다.²⁾

장신구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와 배경에 맞게 변모하고 발전하여 왔으며, 차츰 미적 본능에 의한 장식적 의미로 착용되어지게 되었다.

최초 인류의 신체 장식은 씨앗·곡식날알·조가비로 만든 단순한 모양의 비드(beads)로서 치장을 했다. 또한 동물의 뼈와 이빨로 만든 펜던트를 걸고 다녔는데, 이는 아마도 장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적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또한 초기 장신구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호부(護符)용이나, 장수와 건강을 주술적인 목적으로도 이용되었다.³⁾

이러한 다양한 삶의 양태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식 양식은 순환적이며 역동적이라는 내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조형 이념에 크게 작용한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로의 전환기까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으로 파생된 사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구조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예술지상주의운동(Art for Art's sake)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비주의 경향이다. 이 신비주의적 경향에서 발생하는 황홀한 행복감과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유로운 환상의 상징주의적 감수성은 장식적이며 섬세한 선형의 아르누보 양식으로 나타난다.⁴⁾

2) 임연웅; 「현대디자인론」, 학문사, 1993, p.258

3) 장동건; “한국 현대 공예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p.18

4) 오영식; “아르누보 양식에서 공예의 공간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p.18

이러한 아르누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선형은 과거 묘사적인 성격이 짙은 '장식'과는 다르게 자연물을 소재로 한 유기적인 구성으로 전통적인 형식미에서 벗어나 보다 생동하는 듯한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인지능력과 미의식이 발달됨에 따라 장신구는 그 자체의 조형만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오고 있다.⁵⁾ 과거와 다른 개성 미를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장신구는 독자적인 개성과 창의적 표현이 예술성으로까지 승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현대공예의 경향은 다양한 주제, 새로운 개념이입과 형태, 기법 등의 표현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식품이 조형언어이자 미적 표현대상으로서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아르누보에서 보여지는 부드럽고 감각적인 형태, 길다랗고 굽이치는 듯한 유기적 곡선, 섬세하고 우아한 자연주의적 표현을 디자인에 응용해 보고자 하였으며 아르누보적 장신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Crart」, 2001, NO.5, p.36

6) 전은영; “예술영역의 탈 장르화와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29

2.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적 장신구

아르누보는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Jugendstil), 이탈리아에서는 스틸레 리버티(Stile Liberty), 오스트리아에서는 쉐세이션(Secession)등으로 불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1890년대부터 1900년 전후에 걸쳐 건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의장경향이다.⁷⁾

아르누보의 장신구는 대부분 우아한 유기적 형태이며, 자연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아르누보 작가들은 대개 전통으로부터의 이탈, 새 양식의 창조를 지향하여 자연주의 자발성, 단순 및 기술적 완화를 이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빌려 새로운 표현을 얻고자 했다. 자연에 영감의 원천을 두고 자연의 근본구조 및 자연의 무한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물이나 식물 등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 자연주의적 태도로 임하였다.

자연주의적 요소들이 공예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아르누보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분석해보고 이러한 작품들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추구하는 작품세계에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아르누보 특징인 장식적인 양식과 선(線)은 여성에게 직접 영감을 얻은 것으로 여성의 모습은 온갖 종류로 변화가 가능했다.<도1>

여성의 얼굴은 꽃이나 뱀과 자주 동일시되었던 여인의 육체와 모발을 표현한 아라베스크 문양을 통해 보석공예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⁸⁾ 또한 보석 장식품에 있어 여성과 곤충류를 동일한 작품에 배치하는 것과 생명체에서 보여지는 곡선의 흐름을 최초로 연구했다는 점은 아르누보 디자이너들의 위대한 혁신중의 하나였다.⁹⁾ <도2>

7) 윤장섭; 「서양 근대 건축사」, 보성문화사, 1990, p.97

8) 신성림;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창해ABC북, 1993, p.34

9)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 디자인」, p.64

아르누보 장신구로는 고도로 세련된 에나멜 작업을 종종 꼽는다. 외젠 피아트르 (Eugene-Feuillatre, 1870~1916)는 금속 바탕판 없이 섬세한 스테인 글라스 같은 효과를 창출하는 플라카주 란 기법을 선보였으며 루이스 컴퍼트 티파니 (1848-1933)는 색깔과 조직이 다양한 유리재료를 이용한 양식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공예예술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뤼시앵 가야르(Lucien Gaillard) 의 또 다른 독특한 소재인 빨은 다양한 장신구로 조각되었다. 그의 주요 작품은 자연물을 소재로 꾸민 정교한 빗이다.<도3>

가장 위대한 아르누보 세공사로는 프랑스인 르네 랄리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잔혹함을 동시에 끌어내어 독창성과 기교 면에서 대가다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장신구의 가치란 보석의 크기와 질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비전과 장식성 기술에 있음을 작품에 요약해냈으며¹⁰⁾ 동물의 빨이나 유리처럼 귀하지 않은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도4> 여기에는 물질적인 실체를 넘어서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전달하는 밑거름인 면밀한 자연 관찰력과 색채와 질감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이 결합되어 있다, 실감자리와 장수말벌을 세밀히 묘사한 에나멜 장신구나 메뚜기 목걸이에서 보듯, 곤충 역시 주된 영감원이었다.

르네 랄리크(Rene Lalique)의 작품 딱정벌레는 디자인의 미적 추구에 있어 주제에 대해 혐오와 유인 사이의 긴장 상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붉은 전기 석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듯한 무척이나 사실적으로 표현된 두 마리의 검은색 곤충들의 가닥이진 집게발은 마치 중세시대 고문 도구의 어떤 종류 같이 뻗어져 있다.<도5>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선보인[랄리크의 말벌핀]은 그의 특징인 탁월한 예술성과 기술들이 예로부터 거부감의 대상이던 말벌을 매력적으로 바꿔놓았다.<도6.7>

Lalique는 이와 같이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를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와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자연의 일부를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미학적 기준은 자연주의 디자인의 표현 수단이 되며 자연물이 의식적인 표현의 매개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89, p.160



<도1> Corsage ornament



<도2> Brooch



<도3> Bee and flower comb.



<도4> Bee comb.



<도5> Blister Beetle corsage ornament.



<도6> Wasp pin



<도7> corsage ornament

Ⅲ.패류에 관한 형태 연구

1.형태적 특징 및 분류

(1) 패류 의 형태

생명이란 전체로서의 자연과 동일성을 갖고 외부세계의 여러 상황에 대처하여 내적으로 전달하는 즉, 살아 움직이고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생명체는 인간 의지나 요구와 상관없이 형성되며 일정 불변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이것들은 대립되는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형태가 생성되는데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 생명체는 논리적인 수학적 법칙대신 자연의 질서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이다.¹¹⁾

즉, 자연의 형태는 인간의 의지나 요구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물로서 모든 조형의 원형이 된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패류는 그 생명이 생성되고 다양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과 형태를 갖게되는 유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유기적 형태(Organic Shape)는 순수 과학적 법칙에 의한 형태와는 달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이며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유동적 쾌감을 낳는 형태이다.

조약돌이나 흐르는 냇물의 형태는 자연계에 작용하는 힘과 물질의 저항이 낳은 형태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표피는 골격, 근육, 그리고 내장의 여러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표면적을 줄인 완만한 곡면으로 되어있다. 또 물고기의 형태도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며 생물체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작용시키기 위한 형태인 것이다.

11) H.Read; 「디자인론」, 미진사, 1779, p.34

(2) 색상

패류는 그 삶의 터전인 바다 속에서 해류의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저마다 다른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패류가 가지고 있는 색은 자연적 형태와 어울어져 바다의 이미지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느끼게 하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패류의 색은 생명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패류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라류 - 고둥이라는 조개류를 말한다

① 수도리패 : 흰색을 바탕으로 무지개 빛이 연하게 나타난다.

② 야광패 : 진주 광이 강하게 반사되면서 나타나며, 짙은 분홍색이나 푸른색이 각각 또는 교차되면서 나타난다.

나. 전복류 - 소라와는 다른 일반적인 조개 형태를 갖는 조개의 총칭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청 패라고도 하며 산지별 또는 색상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① 청패 : 색상이 붉은 색, 푸른 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② 색패 : 붉은 색과 푸른색이 약간 감돌면서 선명한 색상이 다른 청 패 보다 진하게 나타난다.

③ 대만패 : 바탕이 깨끗하고 진한 분홍색을 띤다.

④ 얼룩이패 : 청 녹색이 일부분에 어우러지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을 띤다

다. 진주패 - 진주를 생산하는 패류이다

① 노란진주패 : 노란 색상이 있는 진주 패로서 진주 패의 바깥 부분에서 짙은 노란 색이 나타난다.

② 흰진주패 : 진주 패의 색상을 구분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③ 홍진주패 : 일면 홍 패로 불리 워 지며 붉은 색상을 바탕으로 하여 간섭 색이 나타난다.

(3) 해산패의 분류

패류는 동물분류체계상 연체동물문(軟體動物, Phylum Mollusca)에 속하고 지질시대와 더불어 수많은 진화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연체동물(軟體動物)의 거의 전부가 해산패에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무리들로서는 복족강, 굴족강, 이매패강, 다판강, 두족강 등이다.

현존하는 연체동물은 약 5만종이고 화석종도 3만5천 여종이며 대부분이 해산이다.

서식처는 극지 에서 열대지방, 바다에 떠다니는 종에서부터 6.000m이하의 깊은 곳까지 , 바위속, 나무속, 조간대의 상부까지 서식하지 않는 장소가 거의 없다. 폭 넓게 방산 작용한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다른 동물 군과 구별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껍질(패각)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껍질의 색, 형태, 크기 등이 종마다 모두 다르다. 군소 무리나 두족류는 패각이 퇴화되고 몸(육질)속으로 들어가 흔적만 남아있다. 패각은 딱딱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껍질의 일부는 변해서 털이나 가시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해산패는 일반적으로 7개의 강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무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부족류(Bivaivia) <도8><도9>

두 장의 석회질 껍질을 갖기 때문에 “이미패(二枚貝, Bivaivia)” 발의 모양이 도끼 모양을 하기 때문에 부족류라고 부른다. 발달된 머리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촉수와 분화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발(足)은 몸의 배 부분에 있는 것이 원척이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복족류(Gastropoda) <도10><도11>

연체동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종 수도 가장 많다. 패각은 1 장이고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데, 대부분이 시계방향으로 꼬이는 우권이다. 초기 발생 단계에서 앞부분이 뒤로, 뒷부분이 앞으로 가는 뒤틀림(torsion)이 일어나는 것도 복족류의 특징적 현상이다.

(3) 다관류(Polyplacophora) <도12><도13>

껍질은 8장으로 육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발은 매우 넓으며 근육으로 되어 있고, 촉각이나 눈은 없다. 탄산칼슘의 치설에 철분을 포함하는 자철광이 들어있어 다른 패류보다 치설이 더 딱딱하다.

(4) 두족류(Cephalopoda)<도14>

두족류란 머리에 다리가 달려 있다는 의미에서 두족류라고 부르게 되었다. 연체동물 중 가장 발달된 두족류는 현재 생존하는 앵무조개(나우틸루스), 오징어와 문어류 그리고 1억 년 전에 멸종한 암모나이트와 벨럼나이트가 있다. 도족류는 8개 이상의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다리는 근육질의 배수관으로 변형되어 외투강으로부터 공급된 물을 뿜어서 뒤쪽으로 움직인다. 앵무조개와 같은 패류는 하나의 껍테기를 가지고 있고 이 껍테기는 칸막이에 의해서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진다. 그 모양은 구부러져 있고, 꼬인 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굴족류(Scaphopoda) <도15>

껍질은 상아 모양을 하며 머리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아가미가 없어서 호흡은 외투막을 이용해서 한다. 진흙이나 모래 속을 파고 들어가 살며, 외투막 끝부분은 밖으로 내놓아 물의 교환이 일어나도록 한다.



<도8> 가시계두키조개



<도9> 능선조개



<도10> 구멍삿갓조개



<도11> 납작소라



<도12> 균부



<도13> 말균부



<도14> 앵무조개



<도15> 뿔조개

2.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연구

현대에 이르러 장신구는 좁게는 공예분야에서 넓게는 시각예술 영역에서 독립된 매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현대 장신구의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은 작가의 미학적 또는 철학적 표현의 독자성에 대한 것이다.¹²⁾

미학적 표현대상으로, 또는 염원의 상징으로 다듬어진 장신구는 그 조형성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순환적이며 역동적인 내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신구는 새로운 조형의식과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오늘날 공예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통합예술로서 탈 장르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형태에 있어 사실적 묘사를 탈피(脫皮)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표현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또한 현대 장신구는 인체의 착용(着用)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며 ‘인체를 위한 조각’ 즉 ‘Body Sculpture’ 로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된다.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작가의 개성적 표현이 중요시되고 장신구와 조각, 의상, 심지어 행위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영역들이 연구되면서 이제 장신구는 몸을 치장하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예술적 실천을 위한 매체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개발되어 지는 신소재들이 그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없이 장신구 재료로써 응용되어지고 있으며, 제작기법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장신구의 전통 속에서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장신구 작가들의 열정과 함께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현대 장신구사를 열어 가고 있다.

장신구 작가의 작품 속에서 패류를 이용한 자연주의적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2) Crart; 「월간크라트」, 2001, NO.5, p.38

13) 유선태; 「현대공예의 공예성과 순수성」, 월간공예, 1990, p.100

14) 클레어 필립스;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1, p.23

- 이태숙의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바람과 씨앗」 <도16>에서는 이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동일한 작품에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 최양선의 「생명의 환희」 <도17>에서는 이 장신구에서 보여지는 자연석의 형태는 생명력을 가진 듯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잘 다듬어진 자연석은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 조화를 이루며 장신구로서의 가치를 높여간다.
- 김동연의 「바다 저 깊은 곳에는」 <도18>에서는 오랜 시간 형태를 다듬고 마무리 공정이 필요한 자연석의 가공은 어려운 테크닉과 많은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잘 다듬어진 문양은 생명의 형태 그대로를 보여 주기도 한다.
산호, 화석과 자개, 진주에서 보여지는 자연적 이미지는 신비롭게 느껴진다.
- 김윤희의 「흐르는 물결은」 <도19>에서는 바다 속 산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유스런 곡선으로 표현하였고 선적인 요소는 바다 생물들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¹⁵⁾ 비취와 산호를 사용하여 서로의 색감의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면과 선의 적절한 조화로 아기자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 최양선의 「태동」 <도20>에서는 자연석 조각 법은 촉각적 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 금속 조형 작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자연석의 형태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진 듯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 손경미의 「조개구름」 <도21>에서는 구름의 형태를 전통적인 입사기법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 Seaman Schepps의 1949년 작품 「터보조개」 <도22>의 귀걸이는 금줄과 에머랄드 Cabochon(위를 둥글게 연마한)으로 만들었다.
- Boivin의 작품 「두 개의 불가사리」 <도23> Brooch는 루비, 자수정, 에메랄드와 남옥으로 박혀져 있다.

15) 김윤희; “바다생명체의 형태를 도입한 공간 활력형 장신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p.38

- Nillicent Rogers 작품 <도24>은 1941년 Verdura 개울에서 채취한 오렌지색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 Warwick Freeman의 작품 <도25>은 3개의 완벽한 바다 조개중심에 원형의 금 장식과 균형 잡힌 6개의 난집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Therese Hilbert의 작품 <도26>은 기하학에서 유래된 극도로 추상적인 작품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 Manfred Bischoff의 작품 「Ring」 <도27>은 역사적인 예술품과 건축물에 대한 표현 양식이나 형태에 관련하여 회화적이고 서술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장신구는 새로이 개발되어지는 신소재들이 그 경제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장신구 재료로써 응용되어지고 장신구 착용 방법이나 그 제작기법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장신구의 이미지들 속에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많은 장신구 작가들이 열정과 함께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장신구사를 열어가고 있다.



<도16> Brooch



<도17> Brooch



<도18> Brooch



<도19> Brooch



<도20> Brooch



<도21> Brooch



<도22> Earrings



<도23> Brooch



<도24> Brooch



<도25> Brooch



<도26> Brooch



<도27> Ring

IV. 작품연구

1. 제작배경

장신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동안 인간이 애정을 갖고 다루어온 것이다. 본래 장식이란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여 온 것으로 다양한 삶의 양식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러한 장신구는 그 자체의 조형만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어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오고 있다.¹⁶⁾ 과거와 다른 개성 미를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장신구는 독자적인 개성과 창의적 표현이 예술성으로까지 승화되는 장신구의 세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현대공예의 경향은 다양한 주제, 새로운 개념이입과 형태, 기법 등의 표현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식품이 조형언어이자 미적 표현대상으로서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본 연구에서는 패류를 통해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자연을 닮은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느낌의 장신구를 통하여 바다 이미지를 현대 장신구 디자인에 담아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르누보 양식의 생명력에서 오는 자연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요소를 자연주의적 감각에 맞추어 아르누보에 비해 단순화된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패류의 직접적인 사용으로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개성과 본성을 살려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16) 「Crart」, 2001, NO.5, p.36

17) 전은영; “예술영역의 탈 장르화와 확장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p.29

2. 작품에 쓰여진 패류의 형태 및 특성

본 연구는 패류를 소재로 하여 본 연구자가 의도하는 이야기를 장신구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제작된 장신구의 대부분이 패류를 이용하여 만들어 졌으며 독특한 개성이 숨쉬는 장신구를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각각의 작품에 패류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패류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 형태를 있는 그대로 조형화 하여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장신구로 표현하였다.

작품에 쓰여진 패류의 형태 및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라성게 <도28>

작품1에 사용된 보라성게는 약간 편편한 반구형이며 입쪽은 약간 납작하여 개구부를 향해 조금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

② 파이프성게 <도29>, 오오타코나마쿠라<도30>

작품2에 사용된 패류이다. 두 개의 형태에서 오는 자연적 이미지를 조형화 하였다. 파이프 성게의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강하다. 입 쪽은 납작하며 위 구부의 둘레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오오타코나마쿠라의 형태는 둥그스름한 오각형이며, 길이는 폭보다 약간 더하다. 정상 위 부분만 가파르게 높아진 산형을 이루고 있다.

③ 월계관납작소라 <도31>

작품4의 월계관 납작소라의 특성은 껍질은 매우 단단하며 적갈색에 진주광택이 있고 봉합을 따라 황백색 띠가 나타나기도 한다. 패각은 중형의 낮은 원추형이며 나층은 7층이다.

④ 점박이 삼각고둥 <도32>

작품5에 사용된 이 고둥은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두껍고 견고하다. 각구는 좁고 길며 아래 방향으로 가면서 차츰 넓어진다.

⑤ 잔주름꽃잎조개 <도33>

작품6에 사용되었으며 조간대로부터 수심 300m의 모래흙에 서식한다. 각장은 약 15mm이고 껍각은 둥글고 잘 부풀어서 공 모양이다. 성장맥과 약한 방사특이 뾰뾰이 있다. 앞은 둥글지만 뒤쪽 끝은 각정으로 부터 뒤쪽 배면 끝까지 아주 약한 주름이 흘러져 내려가기 때문에 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¹⁸⁾

⑥ 띠달팽이 <도34>

작품7에 사용된 띠 달팽이는 둥근 원추형이며 껍각은 나뿔이고 나층은 5.5층이며 껍각전면에 비스듬한 성장맥이 있다. 적갈색의 색대를 제외한 껍질의 색은 연한 갈색으로 매우 곱다.

⑦ 제주개오지 <도35>

껍각은 중대형이고 장난형이며 두껍고 매우 단단하며 광택이 난다. 등 면은 높게 부풀며 둥글고 갈색바탕에 크고 작은 눈송이 모양의 백색 반점이 퍼져있다. 외순 쪽 등면 가장자리에는 가는 선 무늬가 있다. 앞, 뒤 수관구 부분은 백색이다.¹⁹⁾

⑧ 폴립산호 <도36>

작품10에 사용된 폴립산호는 족반(足盤, Padal disc)을 사용해 기질에 부착하여 입과 촉수를 위로 향하고 있다. 강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8) 민덕기; 「신 원색 한국패류도감」, 도서출판 한글, 2001, p.239

19) 민덕기; 「신 원색 한국패류도감」, 도서출판 한글, 2001, p.101



<도28> 보라성게



<도29> 파이프성게



<도30> 오오타코나마쿠라



<도31> 월계관납작소라



<도32> 점박이삼각고둥



<도33> 잔주름꽃잎조개



<도34> 띠달팽이



<도35> 제주개오지



<도36> 폴립산호

3. 작품전개과정

<작품1>

패류의 조형적 특성과 유기적 역동성을 이용하여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자연친화적 장신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작품 전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새로운 재료에 대한 수집과 발상은 장신구 제작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되었다.
- ② 아래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패류의 유기적인 형상들을 조합·나열·반복·대비 등을 통한 조형화 작업으로 형태를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 ③ 패류의 자연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조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사실성을 살려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하여 <작품1> 「바다의 꿈」을 제작하였다.



<도37> 작품1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2>

- ① 패류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였다.
 - ② 패류의 자연적 물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신구의 성격에 맞게 형태를 구체적으로 조형화 시켜 나갔다.
 - ③ 조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패류에서 보여지는 직선과 · 유기적 곡선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장신구로 구체화 시켜 스케치하였다.
-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2> 「흔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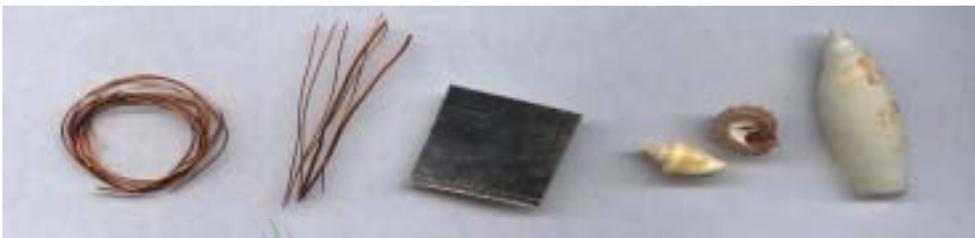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37> 작품2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3>

- ① 작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모색과 새로운 패류의 형태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 ② 자연의 신비로운 형상과 패류의 그 물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신구의 성격에 맞게 조형화 시켜 구체적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 ③ 아래에서 보여지는 스케치 작업은 자연 생명체와 성장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 큰꼭지민챙이 고둥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성숙한 생명체가 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3> 「기다림」을 제작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38> 작품3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4>

- ① 바다의 모양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적합한 패류와 재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 ② 바다의 파도치는 물결의 모습을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선으로 조형화 하여 표현하였다.
- ③ 패류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바다의 흐느적거리는 물결은 주관적으로 단순화시켜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4> 「꿈」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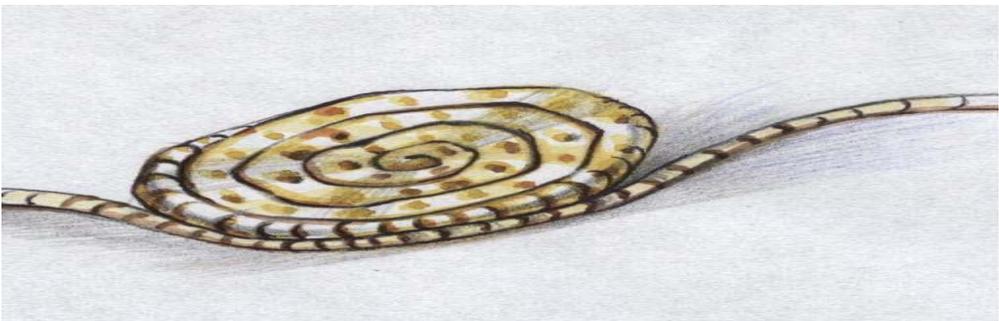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39> 작품4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5>

- ① 패류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절개하여 자료수집 및 형태를 정리하였다.
- ② 시간의 연속성 등 무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다의 에너지를 원 이라는 이미지로 구체화 시켜 점박이 고둥의 둥근 밑면만을 이용하여 조형화 하였다.
- ③ 조형화 작업을 토대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울동 감 을 유기적 형태로 스케치 화 하였으며 <작품5> 「만남」을 제작하였다.



<도40> 작품5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6>

- ①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패류를 수집 정리하였다.
- ② 패류의 유기적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을 살려 조형화 하였다.
- ③ 잔주름 꽃잎조개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곡선의 유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6> 「외출」을 제작하였다.



<도41> 작품6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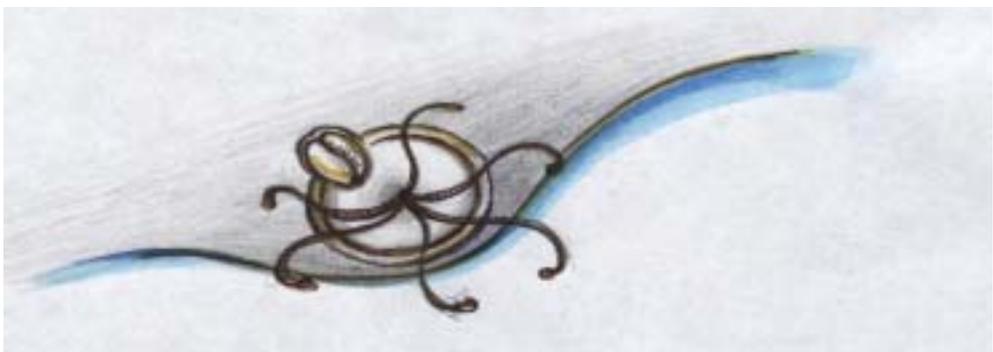
<작품7>

① 새로운 재료의 수집과 장신구의 전체적 미감을 살릴 수 있는 패류의 형태를 수집, 정리하였다.

② 흐르는 물결처럼 자유로운 곡선의 모습을 주로 하여 자연적 형태를 조형화 하였다.

③ 조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스케치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7> 「영원」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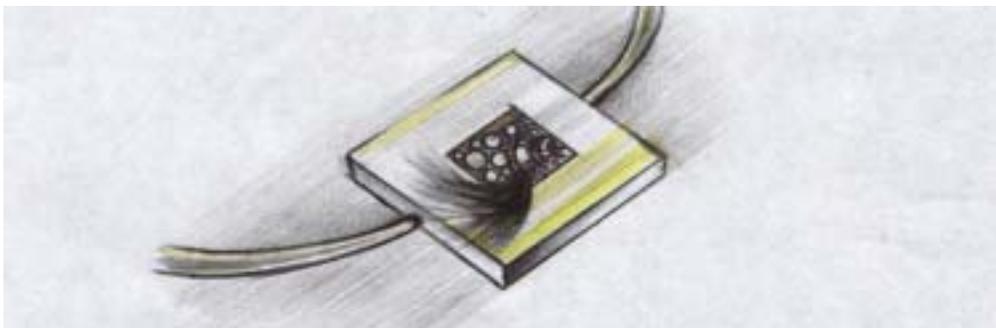


<도42> 작품7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8>

- ①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였다.
- ② 바다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 ③ 조형화 작업을 토대로 이미지 화 된 장신구의 중심에 투각된 부분을 자유로운 형태로 구체화 시켜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9> 「속삭임」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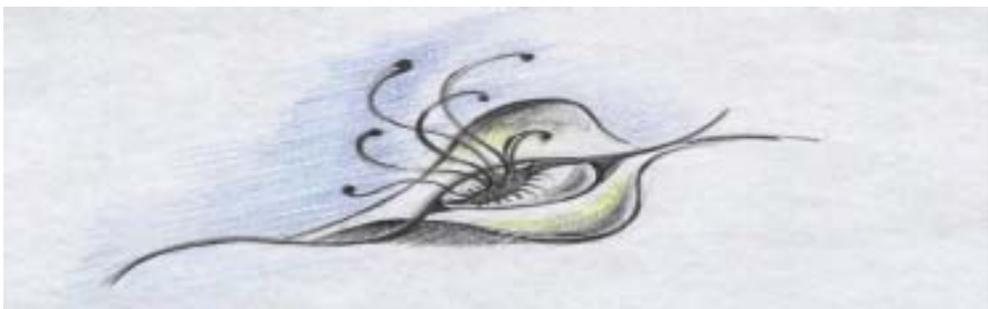


<도43> 작품8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9>

- ① 바다 생물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한 패류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② 바다 속 생태계와 공생하며 살아가는 생물들의 유기적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유동적 곡선을 이용하여 조형화 하였다.
- ③ 패류의 자연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형화 작업을 토대로 자연 그대로의 사실성을 살려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9> 「가오리」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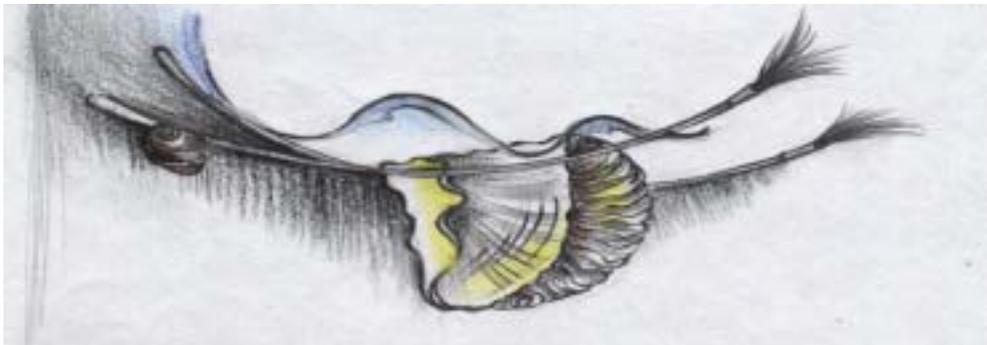


<도44> 작품9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작품10>

- ①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패류수집 및 자료를 정리하였다.
- ② 유기적인 형상들을 조합, 나열, 반복, 대비 등을 통하여 조형화 하였다.
- ③ 패류의 자연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폴립 산호를 중심으로 스케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작품10> 「기쁨」을 제작하였다.



<도45> 작품10의 전개과정 및 Idea Sketch

4. 작품설명



작품1. 바다의 꿈, 40×40×1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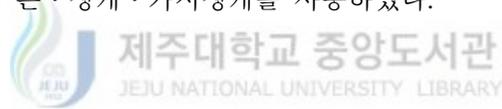
<작품1>

보이는 이로 하여금 작업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자연에 대한 동경과 살아있는 바다 속 생물들의 신비함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부드러우면서 때론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게 기본적인 형을 바꾸기보다는 형태상의 필연성을 위주로 하여 생명력 있는 바다 생명체의 이미지를 원 이라는 틀 안에서 구성하여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생명의 순환을 표현 하고자 하였으며, 조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가는 은 선은 균형 잡힌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Broche 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전통 로울러를 사용해 원하는 판의 두께를 제작 하였으며 중앙의 조개 안에 실리콘 레진(resin)을 넣어 쉽게 깨지지 않도록 하였다.

주재료로써 92.5% 은 · 성계 · 가시성계를 사용하였다.





작품2. 흔적, 30×90×10 (m/m)

<작품2>

바다 속의 많은 생명체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이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것을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수용하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작품2> '혼적'을 제작함에 있어서 패류를 개성적으로 선택하고, 조합·나열·반복·대비의 조형화 작업을 통하여 자연 그대로의 사실성을 살려 장신구 제작을 하고자 하였다.

파이프 성계의 크기에 맞는 난집을 만든 후 난집 내경의 크기와 일치하는 고용임 판을 만들었다. 난집 테의 윗 부분을 경사지게 말아준 다음 조개를 물리고 광쇠로 끝을 눌러 조개와 밀착되게 하였다.

오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개(센드랄라)에 균형 잡힌 5개의 난집으로, 장식성을 배제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주재료로써 92.5% 은·센드랄라·파이프성계를 사용하였다.



작품3. 기다림, 85×20×10 (m/m)

<작품3>

바다생명체를 소재로 그 모습을 재구성하여 입체적이고 공간감이 살아있는 바다 이미지가 강한 개성적인 장신구를 표현하고자 한다.

형태 정 중앙에 위치한 흰색 띠 고동은 성장의 기본방향인 수직적 힘을 강조하고 있으며, 큰꼭지민챙이를 싸고 있는 유동적인 곡선의 흐름은 부드러우면서 강한 바다의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전동 로울러를 사용하여 은 판을 얇게 밀어 원하는 형태로 재단하여 이것을 흰색 띠 고동의 형태에 맞춰 삼각형의 형태로 단조하여 굴곡 있는 면으로 처리하였다. 알루미늄 선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해류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 · 동선 · 큰꼭지민챙이를 사용하였다.





작품4. 꿈, 70×60×12 (m/m)

<작품4>

‘꿈’의 유기적 형태의 월계관납작소라는 자연 생명체의 생성과 바다 환경 속에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의 삶을 표현하였다.

평면적으로 자유곡선을 사용하여 선이 가지는 율동성과 방향성을 생명 순환의 의미로 작품에 활용하였다. 판 작업은 산 세척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판이 터지지 않도록 열 풀림을 하여 단조 망치로 정은 의 표면을 다듬고 늘여 가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화가리 착색을 하고 광쇠로 선의 느낌을 살려주었다.

주재료로는 92.5% 은 · 월계관납작소라 · 줄무늬고등을 사용하였다.





작품 5. 만남 Brooch 50×50×5(m/m).Necklace 20×60×5(m/m)

<작품5>

패류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은 자연적 형태(nature form)의 생명력을 통해 성장 퇴화 해가는 과정을 통한 자연의 무한한 감성을 내포한 자연성의 진수(眞髓)이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동안 원형, 타원형, 나선형 등의 여러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조형성을 살려 장신구를 디자인하였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보기 좋도록 정면형(Frontal forms)으로 디자인하여 양 옆면과 뒷면을 시각적으로 많은 부분을 배제 시켜 정면을 부각시켰다.

Brooche 는 삼각형 소라의 바닥면을 절개하여 원형만을 이용하여 자연성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보다 완성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재료의 영구성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조개 표면에 실리콘을 덮어 재료를 단단하게 하여 보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점박무늬고등을 사용하였다.



작품6. 외출 Brooch 50×45×10(m/m).Necklace 55×60×10(m/m)

<작품6>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무의식 적으로 접하는 자연이라는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따라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연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조형화 하여 바다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다 생물들의 실제적인 형태를 변화 없이 표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을 살려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을 사용하였다.

‘외출’ 은 연체 동물과에 속하는 조개를 모티브로 하여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주관화하여 표현하였다.

조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길고 짧은 선들은 바다의 울동과 시간의 연속성 등 무한한 바다의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바다 속 이야기를 꽃꽂이하듯 조심스러운 설레임으로 표현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 · 은선 · 잔주름꽃잎조개를 사용하였다.



작품7. 영원 Brooch 40×40×15(m/m).Necklace 40×60×10(m/m)

<작품7>

패류 중에서 소라는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선모양으로 꼬이면서 끝이 뾰족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이러한 유동적 곡선을 사용하여 패류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 중심의 줄무늬 고동에서 흐르는 여러 개의 동선은 잔잔한 파도의 움직임과 자연에서 오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Brooch 는 판재를 성형하여 입체감을 살렸으며 Necklace 는 평면적인 장신구로 제작하여 장신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 · 은선 · 띠 달팽이를 사용하였다.





작품.8 속삭임 Brooch 35×35×7(m/m)

<작품8>

‘올바른 예술이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휴식을 하기도 하고 사색을 하며 자연은 우리에게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고유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

내게 있어 바다는 항상 무한한 공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관심은 본질 적인 것이며 그것을 표현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당연하다 생각한다.

많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산호초 위에 펼쳐진 사각형의 바다를 바닥에 놓아 정면형으로 수평 배치하였다. 정지된 듯한 사각 틀 안에 바다를 얹쳐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은은한 은색의 금속 중심에 고둥의 강조로 바다이미지를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은선·어린 고둥을 사용하였다.



작품.9 가오리 Brooch 80×50×10(m/m).Necklace 20×35×10(m/m)

<작품9>

자연의 생명력 있는 이미지를 자연재료의 물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신구 성격에 맞게 조형화 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가오리’의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는 목걸이의 반복적인 선은 자연에서 느껴지는 울동 감과 시간의 연속성을 순환의 의미로 표현하였으며 표면의 불규칙한 둥글둥글 한 질감은 원초적 생명력을 이미지화 하여 표현하였다.

성형망치로 정은 의 표면을 다듬고 늘여 가공한 후 조개를 중심에 물리고 마지막으로 유화가리 착색 후 굴곡 있는 곡면을 가는 솔로 반복적으로 긁어 약동하는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개오지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선들은 생명이 자라고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은선·제주개오지를 사용하였다.





작품.10 기쁨 Necklace 45×40×18(m/m)

<작품10>

여성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장신구는 가지고있을 것이다. 치장을 통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도 하며 나 자신보다는 남에 의해서 보여지는 가식적인 나의 모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은 공예의 근본적인 실용적 원리에 부적합하여도 기존의 상업적인 장신구에서 탈피하여 그것이 ‘직접적 표현’ 이든 ‘간접적 표현’ 이든 무엇을 그리든, 무엇을 제작하든 자연을 항상 가까이 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싶음이며 자연해석을 주관성이 강한 해석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많은 이야기들과 의미들을 담아보려 함으로써 기존의 장신구와는 달리 거대하다고 느껴질 만큼 크게 확대되어진 형태를 빌어 표현해보았다.

관금 기법과 폴립산호를 싸고있는 삼각형 난집 의 표면에 거친 금부 자국을 내어 두툼두툼한 느낌으로 금속공예의 수공예 적인 맛을 살려 바다 풍경화를 그리듯 조형화 하였다.

주재료로는 92.5% 은 · 줄무늬고동 · 폴립산호를 사용하였다.

V. 결론

인간은 자연의 변화와 질서 속에서 공존하면서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으며 자연물로 미적인 것을 창출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무엇을 표현하려는 의지는 오래 전부터 내재해온 인간의 기본 습성이다.

자연가운데에서도 바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동경심과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선사해 주고 있다.

본인 또한 이러한 바다를 모태(母胎)로 하고 있는 패류를 소재로 하여 그 형태를 재구성하여 자연의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바다 이미지가 강한 자연 친화적인 장신구를 표현하고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 연구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류를 이용한 장신구 제작에 있어서 일반적인 장신구가 가지는 장식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료의 모색과 표현 방법으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자연주의적 경향이 강한 장신구를 표현하였다.

둘째, 아르누보에서 보여지는 곡선 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연물을 주관적인 미감으로 재결합(再結合), 형성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장신구로 형상화(形象化) 시켰다.

셋째, 패류의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형태를 조합, 나열, 대비 등의 조형화 작업을 통해 자연적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패류의 자연적 물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신구의 성격에 맞게 형태를 구체적으로 전개 시켰다.

그 결과 자연의 광범위한 조형세계가 귀금속 장신구의 미적 재료로서 손색이 없으며, 자연주의적 바다 이미지의 장신구를 표현하는데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오길 외 5명 ; 「신 원색 한국 패류도감」, 도서출판 한글, 2001.
- 김경아. 이정임 ; 「공예가를 위한 귀금속 공예 기법」, 주얼리우먼, 1999
- 김용희 ; “바다 생명체의 형태를 도입한 공간 활력형 장신구”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9
- Vivienne Couldrey ; The art of Louis Comfort Tiffany, 1916.
- 신성림 ;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창해ABC북, 1993.
- 윤장섭 ; 「서양근대건축사」, 보성문화사, 1990.
- 임창섭 ;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신구문화사
- 장동건 ; “한국 현대 공예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전은영 ; “예술영역의 탈 장르화와 확장성에 대한 고찰” ,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0.
- 클레어필립스 ;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89, pp.160~161.
- Fritz Falk ; Schmuck der Moderne
- Penny Proddow ; Bejeweled, Harry N. Abrams, Inc, 2000.
- 필립예나원 ; 한국미술연구소 「현대미술감상의 길잡이」, 시공사, 1994.
- Harriet Whelchl ; Jeweled Bugs and Butterflies, Harry N. Abrams, Inc, 2000.
- 한희선 ; “조개류 형태를 통한 도자표현” ,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